

통도(通度)의 가풍(家風)



창건주 해동(海東) 율조(律祖) 자장대국통(慈藏大國統)께서는
중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일체의 법이 불변의 본성이 없음을 또렷이 알아야 한다.”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

“이렇게 법의 본질을 알면 바로 노사나부처님을 뵈리라.”라는
화엄경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도사가 존재하는 1차적 가치와 의미는 바로 4부대중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지를 누가 하는가는 결코 통도사 대중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임자로, 절의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인 출가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대중들의 뜻은 모아졌습니다. 모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출가정신으로 되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 방장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제를 맞이하여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합시다. 이것이 이 나라와 불교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통도사를 망치는 불법집회인 산중총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